

GIST,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공연 개최...

지역문화 활성화 노력 결실

- GIST 후원으로 10년 전 창단... GIST 설립 30주년 축하 겸해

▲ 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포스터

호남권 유일의 아마추어 시도민 관악협주단체 '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(단장 김종명)'가 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.

특히 이 단체는 10년 전 GIST로부터 연습 공간을 무료로 지원받은 덕분에 창단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. 또한 크고 작은 문화 공연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온 GIST가 거둔 결실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.

GIST는 오는 12월 2일(토) 오후 5시, 행정동 1층 CT아트홀에서 기관 설립 30주년과 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*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'함께한 10년, 함께할 10년'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윈드 오케스트라(Wind Orchestra): 목관악기와 금관악기, 타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말한다. 각 악단의 악기 편성과 악단의 연주 성격에 따라 심포닉 밴드(Symphonic Band) 또는 윈드 앙상블(Wind Ensemble)로 부르기도 한다.

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는 '명량해전'과 '로스 로이(Ross Roy for Concert Band)' 등 격조 높은 작품은 물론 디즈니 영화 모음곡, 조용필, 김광석 메들리 등 대중적인 곡들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들려줄 계획이다.

오케스트라를 10년간 이끌어 온 장현룡 지휘자는 “2013년 창립 당시에는 ‘금관악기 앙상블’로 시작했는데, 배우기 쉽지 않은 금관악기 특성상 단원이 6~7명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**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**”며 “연습장 무료 사용 등 GIST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**지금의 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는 불가능했을 것**”이라고 회상했다.

현재 광주시민윈드오케스트라는 목관악기를 포함한 윈드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확대되어 **50명의 단원이 웅장하고 화려한 사운드를 선보이고** 있다. 대표적 활동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,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초청연주, 바라밀 요양원 효도콘서트, 2023년 관악페스티벌초정연주 등 **다양한 연주를 통해 활발한 생활예술 활동을 펼치고** 있다.